

와카사와 쓰루가에서 만들어진 목제 패

개요

와카사국(와카사노쿠니)은 조정에 대한 특정 세금과 공물로 식재료를 납부했습니다. 8세기 이러한 납세에 패로 사용되었던 목간(木簡)이라 불리는 목판이 지금의 나라현에 있던 옛 수도 후지와라쿄와 헤이조쿄에서 발굴되었습니다. 이 패에는 출하처 지역, 관련 세금이나 공물, 출하물에 포함된 식품의 종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와카사에서 조정에 바치던 것으로는 대량의 소금과 도미, 홍합, 성게 등 다양한 해산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세 정보

궁정에 식재료를 공급했다는 증거

와카사 지역의 목간은 옛 수도였던 후지와라쿄(694년~710년의 수도), 헤이조쿄(710년~740년과 745년~784년의 수도) 발굴조사에서 출토되었습니다. 이는 와카사국이 천황이나 조정을 위한 식재료 공급 지역으로 지정된 미케쓰쿠니였음을 시사합니다. 다른 미케쓰쿠니로는 현재의 효고현 아와지섬인 아와지국, 현재의 미에현인 이세국, 시마국 등이 있었습니다.

목간의 특징과 기재 내용

발견된 목간 중 가장 오래된 것은 687년의 것입니다. 이 패는 보통 편백나무와 삼나무로 만들어져 있으며, 길이는 약 8cm~24cm 정도입니다. 목간에는 출하처 지역, 관련 납세의 종류, 납세자 및 출하된 식품의 종류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납세 형태의 기록

많은 패에 소금 출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는 조(調)라는 종류의 개인세를 납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조는 연령과 노동능력에 따라 조정된 평민계급 사람들에게 부과되던 세금이었습니다. 당시에 각종 세금은 돈이 아니라 쌀이나 콩 등과 같은 식재료로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조는 생실이나 재목 등 쌀 이외의 물건으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와카사국은 중요한 소금 생산지였기 때문에 주민들이 내는 조의 주요 납부형태는 소금이었습니다.

그 밖에 목간에 기재되어 있는 수도로 보내던 식품으로는 정어리, 도미, 홍합, 성게, 전복, 멍게, 오징어, 해삼, 해조류 등이 있습니다.

전시품

옛 도읍 유적에서 출토된 목제 패 복제품이 커다란 유리케이스 속에 걸려 전시되어 있습니다. 앞면과 뒷면이 모두 잘 보이도록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케이스 옆에 있는 터치패널식의 목간 내비게이션은 수십 점의 목간을 연대·출하처·내용물이라는 3 개의 카테고리로 검색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각 페이지에는 고해상도의 패 이미지와 목간에 기재되어 있는 본문이 표시되어 있고, 현대 일본어 번역과 출하내용에 대한 일러스트가 함께 게시되어 있습니다.